



손창남·안은숙 선교사 기도편지
-2023년 5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연두색의 연한 잎을 내던 나뭇잎들이 점점 초록색으로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푸르러진 산하를 보는 것만으로도 활력이 넘치는 5월입니다.

♣ 감사 제목

1. 인도네시아 방문

3월 2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흘 동안 인도네시아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에는 “깔리만탄”섬의 “빠랑가라야”라는 도시를 먼저 들렸습니다.



그 곳에서 “넬레스” 형제 부부(넬레스 형제의 와이프는 현재 깔리만탄 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의해 시작된 “깔리만탄 죠이” 사역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수 백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 훈련을 받기 위해 토요일과 주일 오후에 집중해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 후 중부 자바섬의 도시 “족자카르타”로 이동하여 죠이 현지 간사들과 함께 죠이

리더 훈련, 그리고 일반 죠이 회원 훈련을 위한 강의로 섬겼습니다. 아직 코로나 후유증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대면 모임이 늘어나면서 “족자카르타 죠이 센터”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족자 방문 중에 먼저 주님의 품으로 간 “구나완”과 “쏘빠르” 간사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모두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 주님 품에 안긴 귀한 사역자들입니다.



그 다음 일정은 “자카르타”로 이동하여 인도네시아 죠이 이사님들과 함께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만에 대면으로 모인 이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회 후에는 자카르타 도시 인근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죠이 동문 모임”에 참석한 후 귀국했습니다.



2. 죠이 회관 공사

죠이선교회 회관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내부 공사를 했다면, 올해는 주로 외부 공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성에 대한 불안과 걱정 없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3. 3차 교회와 선교 세미나

3월에는 한국OMF에서 세 번째로 예정된 “교회와 선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참석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배경의 분들에게 이 조인하셔서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선교 관련 세미나가 지역교회들로 하여금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익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함께 섬겼던 오엠에프 선교사들도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4. “풀뿌리 선교” 탈고

“풀뿌리 선교”를 탈고했습니다. 늘 책을 쓸 때마다 배우는 것이지만 이전에 생각했던 것들 가운데 새롭게 수정되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좋은 학습의 시간이었습니다. “풀뿌리 선교” 책은 올 6월 초에 출판될 예정입니다. 이 책이 제도권 선교 외에도 많은 일반 성도님들의 손에 들려 읽히지며, 그들의 삶 가운데 다양한 선교적 실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해주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1. 5월과 6월 사역

이제 바야흐로 대면 시대가 되면서 오프라인 강의와 설교요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끔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되는데,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감당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2. “바이그 이야기” 북콘서트

“바이그 이야기”의 저자인 “바이그” 자매를 한국으로 초청해서 북콘서트를 가질 예정입니다. 날짜는 6월 8일(목) 저녁 7시, 장소는 이수역 근처 “방주교회”입니다. 많은분들께서 참석하여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가운데 기억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현재 살고 있는 “스리랑카”에서 바이그 자매가 한국으로 오는 비자를 받는 일과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한국 죠이선교회 사역

2023년 죠이선교회의 최대 화두는 ‘간사 훈련’입니다. 5월에는 간사 리더 교육을 할 예정이었으나 현장 간사들의 사정에 따라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훈련에 참석하는 모든 간사들에게 훈련과 교육이 유익이 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4. 6월 죠이선교회 전국수양회

작년에 이어 죠이선교회의 각 캠퍼스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죠이 전국수양회”로 모입니다. “선한 목자교회”에서 담임목사님으로 사역하다가 최근에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신록이 풍성한 봄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쳐나길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2023년 5월 15일
사랑과 감사를 담아
주 안에서
손창남 · 안은숙 선교사 드림